

• 마가복음 12:28-31

‘많은 계명 중 무엇이 첫째입니까?’ 이것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(막 12:28).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‘예배’를 통해, 이웃 사랑은 ‘섬김’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. 예배자들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‘훈련’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,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.

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내 방식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, 상대방의 기쁨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(사 43:21).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,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(시 147:11).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(요 4:23).

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. 예배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.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고, 때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과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영과 진리라는 기준에서 볼 때, 예배는 음악이나 스타일 이상의 것입니다. ‘오늘 예배 은혜로웠어’라는 고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서 온 것인지, 내 눈과 귀, 마음과 생각의 흡족함에서 온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.

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, 예수님의 십자가·부활의 은혜,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한 예배자들은 자신이 거둬난 존재임을 되새깁니다. 언제, 어디서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.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나의 전 존재로 최선을 다해 반응할 것을 결단하며 또 다른 예배의 자리, 일상으로 파송됩니다.

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
예배하고 있습니까?

- ① 예배를 드리며 내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?
- ② 나는 어떤 예배에 가장 은혜받습니까?